

2025 03

통권 299호

티오크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청기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짝을 티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넌곳 천주교안동교구사무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남희정 데레사 수녀
(상지 미래 경영 고등학교)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마태오 10, 30)

성경 말씀은 목성동주교좌 본당의 박해천 세베로님의 글씨입니다. 형제님의 묵상 글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 자신도 셀 수 없는 머리카락을 하느님께서 다 세어 두셨다니!」 하는 놀라움과 의문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정보를 제가 모르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꿰뚫어 알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믿는 이들을 성화(聖化)시키십니다. 주님, 믿는 이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저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점점 더 성화되어,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마침내, 진리이신 성부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반모임 길잡이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저항과 혼란

8.

정보 부족으로 장기간 - 최소 수십 년 - 에 걸친 대규모 기후 예측을 최대 몇 주간에 해당하는 일기 예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수십년 동안 지속하는 전 지구적인 현실 - 지속적인 지역적 변동과 함께 - 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9.

이러한 현실을 단순화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아이가 너무 많다고 탓하며 저개발국 여성들의 신체를 훼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잘못된 가난한 이들의 뒤흔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계 인구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장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인구의 50퍼센트보다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가난한 나라의 1인당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는 이 역사적인 탄소 배출량에서 극히 일부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안동 감목대리구 시절과 발전”(3)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58년에 설립된 안동감목대리구는 북부지역이 대구교구에서 독립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활한 경상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교구의 과중한 사목활동에 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 해서 대구교구는 대전지역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었던 파리와방전교회 사제들을 대구교구로 불러들이고, 이어서 경상도 북부지역의 사목을 담당하도록 파리와방전교회에 위탁하였다.

1960년 1월 28일에 입국한 파리와방전교회 총장 르메르 주교는 이미 한 차례 1954년에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대전 지역뿐 아니라 안동, 포항, 봉화, 예천, 영주본당 등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들 지방에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포교활동을 전재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1950년 6.25전쟁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고,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유의 민족성인 은근과 끈기의 정신으로 전쟁복구를 위하여 다시 일어서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도 부단히 노력하여 1953년 휴전협정 당시 신자 수가 16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1962년에는 53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교황 요한23세는 한국교회의 발전과 미래의 비전을 높게 평가하면서 1962년 3월에는 각 지역에 있는 지목구들을 완전한 자치를 위하여 자립교구로 승격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목구를 서울대교구로, 대구대목구를 대구대교구로, 광주지목구를 광주대교구로 승격시키는 한편, 전주지목구등 각 지목구를 교구승격하였다. 그리하여 대구대교구관할에는 부산교구와 청주교구가 독립하였고, 각 교구의 교구장은 지목구장을 그대로 교구장으로 유임하였으며, 당시 대구대교구

장 서정길 요한 주교는 대주교로 승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교회는 자치교구가 되었으며, 교계제도의 새로운 장(章)을 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2년 교황 요한23세는 “회개와 쇠신”이라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제1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사회발전에 대처하기위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1962년 개최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개신교 각 교파와 서로 적대시켰거나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한 형제애로써 정신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한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 1월 18일 오후 7시, 당신 안동본당(주임: 차기선 신부)에서는 시내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등 개신교의 각 교파의 목사와 장로, 집사 등 대표자들과 개신교 신자 70여명, 천주교신자 200여명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교회 일치를 위한 공동기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때 안동 장로교회 김광현 목사는 “하느님도 하나요, 구세주 그리스도도 하나이니, 우리 형제들은 하나이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서로 소원하게 지내왔으며, 앞으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 되어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가톨릭도 문호를 개방했음을 환영하고, 개신교 측은 성경 자유해석으로 분열을 거듭한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안동지방의 이 같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노력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일치하려는 안동감목대리구의 노력임과 동시에 앞으로 설정될 안동교구 시대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는 시금석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서 안동감목대리구에서 안동교구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천주교 안동교구 청년밴드 ‘어울림’ 회장
함창 본당 이대홍 로마노

사회 초년생 시절, 타지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성당 미사를 나가는데 한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대학생 때나 사회 초년 시절에 경산과 대구에서 생활 하였는데, 그곳에는 ‘청년 미사’가 별도로 있었다. 중·고등학생 때 주일 학생 미사를 나가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어디로 미사를 갈지 고민하던 때, 대학교에 있는 가톨릭 학생회나 대학교 근처에 있는 성당을 나가보니 ‘청년 미사’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략 스무 살부터 서른 살 중후반까지의 청년들이 주로 참석하는 미사였다. 분위기는 주일 학생 미사와 비슷해서 미사 참석도 거리낌 없이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 내가 나가는 성당에는 주일 학교 학생 미사와 교중 미사뿐 이었다.

청년 미사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어느 미사를 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사회인이니까? 성인이 되었으니까? 교중 미사를 나가야 하는 건가? 아님 익숙한 주일 학생 미사를 나가도 되는 건가? 대학 시절 나가는 성당의 청년 미사는 반주도 밴드로 하고, 생활 성가를 불러 주일 학생 미사와 분위기가 비슷했기에, 주일 학생 미사를 나가는 게 더 익숙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안동교구 출신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쯤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교구 안에서도 청년 미사가 있는 성당이 거의 없었고, 대



청년 미사 반주 봉사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성인이다. 이제 어른이다.’ 하시면서 바로 사목회, 레지오 등으로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청년이라는 하나의 계층이 없어지고, 대학생까지는 학생, 그 뒤로는 바로 성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타 교구에 비해 청년이라는 계층이 뚜렷하지 않고 어느 곳에 소속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은 안동교구도 점점 청년 계층, 청년 모임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다. 지구나 교구 단위로만 있던 청년 모임도 요즘은 각 본당에서 하나둘씩 생겨나는 청년들로 인하여 본당 자체에서 청년 모임을 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고, 본당, 지구, 교구에서 청년들의 모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겨나서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청년들이 하나의 계층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안동, 상주, 문경지구는 많지 않은 인원수이지만, 지구 자체적으로 청년 미사를 한다거나 지구청년회에서 활동하는 모임도 하나둘씩 만들어 가고 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안동교구에 있는 청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 활동에 참여하여, 더 활발한 교구 청년회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카나의 혼인 잔치와 포도주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래아 카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바람에 주인이 준비한 술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이를 알게 된 마리아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하시자 예수께서는 일꾼들을 시켜 물독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한 다음 그것을 퍼서 주방장에게 갖다 주게 하였다. 주방장은 그것이 너무 좋은 포도주임을 알고서 놀라 주인에게 가서 “누구든지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술이 취한 다음 덜 좋은 술을 내는 법인데 이 집은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하고 감탄했다. 그 일은 일꾼들과 제자들만이 아는 일인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잔치에 술이 없으면 흥이 깨지기 마련인데 예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함으로 흥겨운 잔치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다.

카나의 혼인잔치와 연관된 재미있는 일화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고든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시절 신학 과목 논술고사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것인데 바이런은 “물이 그 창조주를 뵈고서 얼굴을 붉혔도다.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라고 적어 최고점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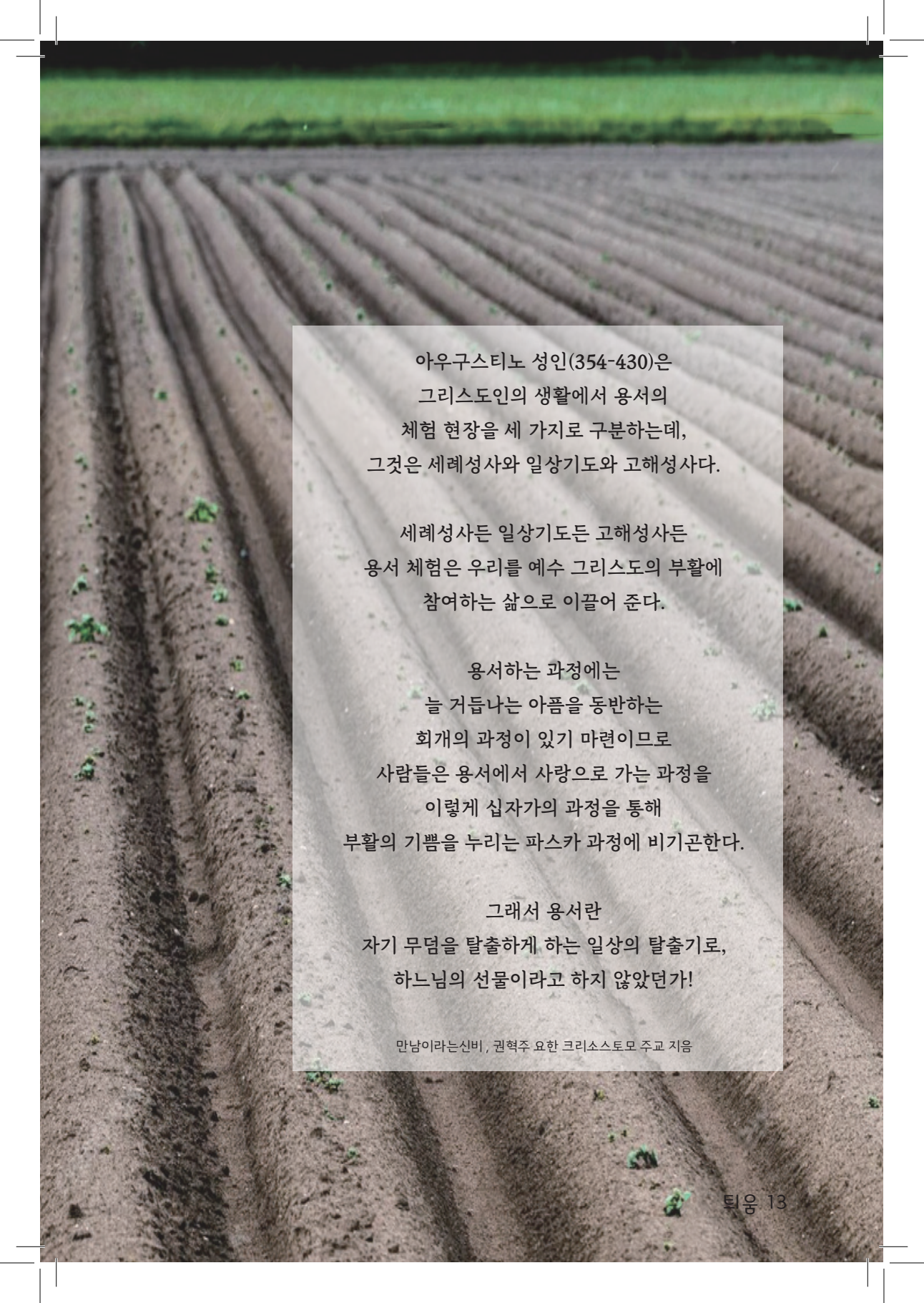
카나 혼인 잔치
소림 김정자 마리스텔라 作

았다. 물론 이 이야기가 바이런 시인이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것이 각색되어 널리 퍼졌다는 설이 많지만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여 주신 기적을 유쾌하게 설명하기에 자주 인용된다.

“신이 물을 만들고, 인간은 술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지만 포도주는 신이 만든 술이다. 왜냐하면 포도는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두어도 술이 되는데 당도가 높아 껍질에 효모가 붙어 있어 항아리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발효가 일어나 포도주가 되기 때문이다. 포도 껍질에 있는 효모가 포도 알맹이의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든 것이 인류 최초의 술인 포도주다. 인간이 만든 술로 대표적인 것이 맥주다. 맥주의 주재료는 싹을 틔운 보리인 맥아(麥芽)다. 한방에서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한약재로도 많이 쓴다. 보리는 싹을 틔울 때 아밀레이스(Amylase)라는 소화효소가 생겨서 녹말을 분해하여 성장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한 당분을 만든다. 아밀레이스는 사람의 침샘과 췌장에서도 분비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계속 입안에 머금고 씹게 되면 단맛이 생기는 데 바로 이 아밀레이스의 작용이다. 맥주는 이 맥아당을 이용하여 알코올을 만들기에 소화를 돕는 성분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100% 맥아로 만든 맥주를 마시는 게 더 좋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아우구스티노 성인(354-430)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용서의
체험 현장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세례성사와 일상기도와 고해성사다.

세례성사든 일상기도든 고해성사든
용서 체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이끌어 준다.

용서하는 과정에는
늘 거둡나는 아픔을 동반하는
회개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므로
사람들은 용서에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파스카 과정에 비기곤한다.

그래서 용서란
자기 무덤을 탈출하게 하는 일상의 탈출기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만남이라는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음

영양 본당 청기공소

Q : 청기 공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 1 : 저는 지금 공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영양으로 귀농해서 귀농하자마자 공소에 찾아와서 우리 신자분들 만나 뵙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어르신 신자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 자매님들은 거의 다 계십니다. 우리 공소는 현재 귀농하는 분들이 많아 다른 공소에 비해 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귀농했을 때 아마 우리 공소 어르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쉽게 정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공소 신자분들의 도움을 무지무지 많이 받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제가 기적처럼 쉽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2 : 우리 공소의 구성을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서 나서 결혼하고 쪽 생활해 오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도 공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 다른 귀농하신 분들에 비해 지금까지 정착도 잘하시고, 또 모든 면에 모범적이어서 우리 공소 신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귀농하신 젊은 신자분들 덕분에 화합도 더 잘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잘 견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소가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 3 : 저는 젊은 시절에는 공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였는데 지금은 성경 필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하는데 성경 필사가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죽는 날 까지 성경을 계속 필사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1 : 우리 공소는 화합이 잘됩니다. 특히 기존 신자분들이 새로 귀농하신



분들이 오시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새로 오신 분들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 한 마음으로 공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공소는 50~60대도 많아 그들을 청년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어도 대체적으로는 화합이 잘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기도 하였지만 공소 예절 마치고 신자들이 모여 물고기도 잡아 같이 나눠 드시고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의견을 나누고 공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4 : 우리 동네에 1940년대에 장로교가 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공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쯤 신자 대학생들 몇이 모여서 동네 정자에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공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동네 정자에서 공소가 시작되었고 나중에 집을 사서 공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천주교보다 장로교회가 한 20년 정도 먼저 들어왔지만 지금 교세를 보면 신자 수나 화합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봐도 낫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 공소가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공소에서 봉사하신 회장님들과 봉사하신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 공소가 금방 없어질 것 같다가도 또 살아나고 합니다. 오늘 미사에 나오신 분들은 15명 정도이지만 전체 신자 수는 27명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동네의 다른 분들 보다 더 평이 좋은 생활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소에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미받으소서 141항-150항

- 141항** 환경 보호는 사실 ()의 핵심 요소이어서 별도로 다룰 수 없습니다.
- 142항** 국가 행정과 다양한 차원의 (), 또는 개인들의 관계에서도 불법 행위가 너무 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 143항** 그 지역의 고유한 ()을 보존하면서 역사와 문화와 건축을 통합해야 합니다.
- 144항** 삶과 세상이 역동적이기에 우리도 세상을 유연하고 ()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145항** 단일한 생산 방식에 연결된 하나의 ()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생태계의 개조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 146항** 그들이 ()에 머무를 때 그 땅을 가장 잘 돌봅니다.
- 147항** 우리는 환경에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 148항** 때때로 가난한 이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룩하는 ()는 칭찬받을 만 합니다.
- 149항** 공동체적인 ()이 때로는 한 건물이나 동네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 150항** ()인 아름다움의 추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하여 선정된 분들에게 보내드린 간식을 맛있게 즐깁니다.

정답은 3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7383-3114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포	땅	한	치	학	성	개	찰
적	최	기	경	유	맹	체	권
동	발	불	자	인	의	보	정
역	펜	전	간	열	일	체	락
신	설	생	과	시	우	응	험
요	태	희	민	정	적	적	컬
계	생	사	풍	외	면	줄	잔
저	회	환	배	인	적	배	지

1월 당첨자

김종순 소피아 (계림동 본당)

장석순 수산나 (의성 본당)

허태인 프란치스코 (용상동 본당)

백영애 루시아 (남성동 본당)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19 -지구 사막화 문제 해결하기-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2024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2024년을 포함한 최근 1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이었다. 기후 붕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파멸의 길에서 서둘러 빠져나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절제한 인간의 행동으로 발생한 전례 없는 더위가 10년째 지속 되면서 극단적 기후 변화는 인류 역사상 단연 최고의 위협입니다.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겪지 않을 ‘위험한 더위’를 작년에 41일이나 추가로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 변화는 기후 위기를 지나 ‘기후 붕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과 가뭄, 폭풍우,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가열화로 인한 가뭄의 급속한 확산은 지구의 사막화 속도를 높여 인류의 생존 기반이자 식량의 보고인 농업마저 황폐화 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큼니다.

1. 지구 사막화의 문제

지구 가열화에 따른 기후 붕괴로 인해 생긴 현상이 지구 사막화입니다. 헨들리 센터는 지구 가열화로 인해 2100년까지 지구의 3분의 1이 사막화될 가능성이 높고, 수억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뭄이 22세기로 넘어가면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이 사막화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지구면적의 19%가 사막화 되었으며, 사막화로 인해 농경지를 잃은 농민의 수가 15억명에 이릅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대입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방은 1960년대부터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사막화로 인해 70년대 초와 80년대 초에 수백만 명의 사람과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죽어갔습니다. 수천 년 동

안 별다른 재난이 없었던 이 지역에 두 번의 엄청난 재난이 닥친 것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환경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사헬의 재난을 계기로 세계 여러 곳에서 사막화의 위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구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를 지탱하고 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도한 경작과 산림 훼손으로 토양을 황폐하게 시켜 지역의 기후를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아시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제 개발 정책으로 인해 심각할 정도로 급속하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전체 면적 43억ha 중 17억ha가 이미 사막화로 황폐해졌습니다.

2. 사막화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방안

현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림복원을 제일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나무 심기와 같은 산림복원 활동을 통해 토양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이고, 식물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중국의 쿠부치 사막과 고비 사막(대한민국에 불어오는 황사의 60%)은 녹색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면서 사막화 속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막화 해결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농업적인 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나무가 자라면 농사가 가능해지며, 식량대란의 해결 방법 또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사막화는 인류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없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생활 속의 작은 실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의 문명 세계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생태주의적 사고와 전환이 이루어져서 이 지구와 우리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를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빌려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개합니다.-천주교 안동교구 역사관

요리강령

(1959년, 가로27cm*세로36cm)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학교

남희정 데레사 수녀
상지 미래 경영 고등학교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희정 데레사 수녀입니다.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상지 미래 경영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지 미래 경영 고등학교

상지 미래 경영 고등학교는 왕묵도 신부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대 당시 농촌의 열악한 교육 현실속에서 왕신부님은 1959년 5월에 본당 안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성경강습소’를 세워 학업을 계속이어가게 하였습니다. 학교 규모가 점점 커져서 1961년 본교 전신인 ‘성모고등공민학교’ 인가를 받았고 1969년에는 ‘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현 툇징포교베네딕도수녀회대구수녀원)’의 수녀를 초청하여 학교의 교육 사업과 본당 사목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여성 교육을 위한 정규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1969년 5월에 ‘안동교구’가 설정되면서 교구내의 교육 사업을 담당할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만들어지고 고등공민학교가 마침내 1969년 11월 17일에 상지 여자중학교가, 1972년에 고등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아 각각 이듬해에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체제도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2009년부터는 기숙형 학교로, 2014년은 특성화고로, 2023년 3월에는 교명과 체제가 ‘상지 미래경영고등학교’와 남녀공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람

저는 본당 사목을 하다가 2013년부터 이곳 학교에서 근무하며 영어 교육과 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년이나 되니 졸업생 중에서 직장



다니는 학생도 있고 결혼한 학생도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고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저를 찾아 줄 때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문제아들과 코드가 잘 맞나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문제아도 아니고 예쁘고 착하기만 한데. 아마 가정에서 결핍이 많아 관심을 끌려고 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 성적보다 이해받는다는 마음과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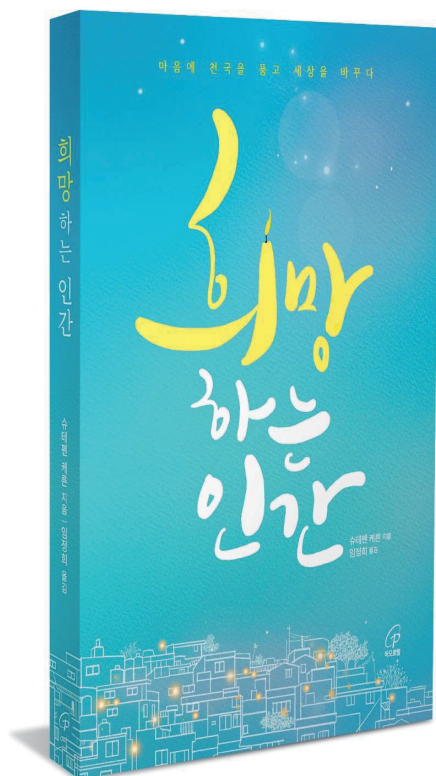
종교 교육

여기는 가톨릭 고등학교이니만큼 미사와 같은 종교적 활동이나 교육도 합니다. 설립자이신 왕목도 신부님 기일 즈음과 졸업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등교해서 아침 방송 시작 전에 주님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잘 안 듣는 듯해도 복도를 걸어가면서 성가도 흥얼거리고 주님의 기도도 곧잘 외우는 것을 보면 그런 시간이 싫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소임

요사이 교사의 권위에 대항하는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직 생활을 어려워하는데 이곳 학생들은 저희의 모습이 신기해서인지 분위기 탓인지 인사도 잘하고 행동도 예뻐요. 태도, 몸가짐에 대해 지적도 많이 하고 깐깐하게 지도하지만 큰 반발이나 불량한 행동은 없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옳고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학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따뜻함을 가르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저의 더 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희망하는 인간

슈테펜 케른 지음 | 임정희 옮김 |
280쪽 | 17000원

이 책은 ‘희망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가 체험한 여러 에피소드와
사례를 통해 세상 한복판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사회 현상을 신앙에 비추어
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영원을
향한 희망을 지니게 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희망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희망하는 인간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희망하는 인간은 늘 새롭게 시작한다. 희망하는 사람은 두 발을 땅에 딛고
마음에는 천국 한 자락을 품고 있다.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사제의 단상

“소명과 소임”

(로마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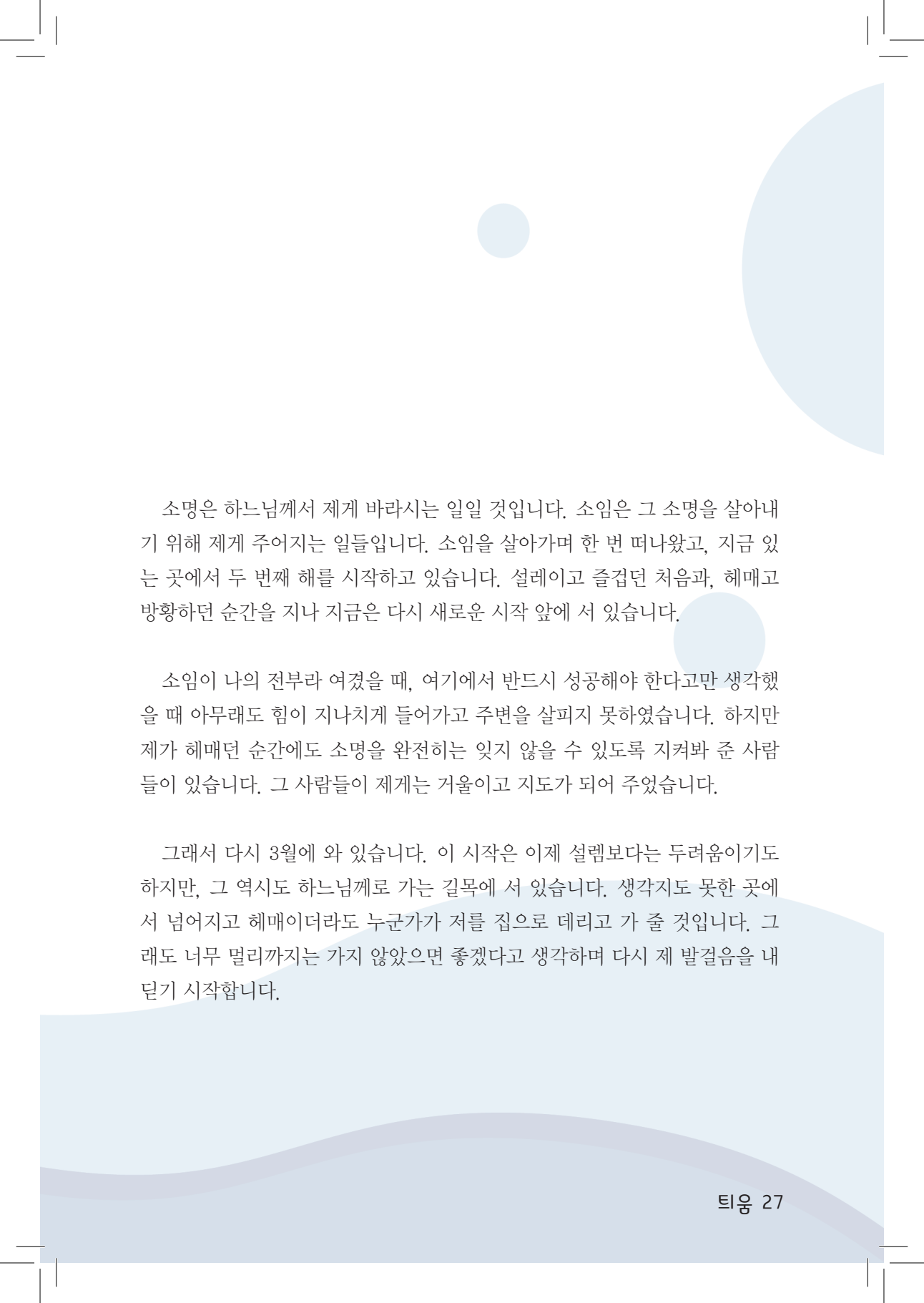
이한결 스테파노 신부
갈전 마티아 본당 보좌

저는 길치입니다.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고 걸어도 방향과 건물을 착각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위로해 주기 위해서인지 자신도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높은 확률로 제가 이길 것입니다. 아직 저보다 더 길을 못 찾는 분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나를 극복해 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찾아가 보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야 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미 처음과 다른 먼 곳에 다다른 상태였고 저는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가야 할 곳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 당시 그때의 저를 떠올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 출발하자고 다짐합니다. 처음 나설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무엇보다 고집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한테 묻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사제로서 삶을 처음 시작할 때 즈음 “소명과 소임을 헛갈리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멋있다고 생각해서 기억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요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소명은 하느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소임은 그 소명을 살아내기 위해 제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소임을 살아가며 한 번 떠나왔고, 지금 있는 곳에서 두 번째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레이고 즐겁던 처음과, 헤매고 방황하던 순간을 지나 지금은 다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소임이 나의 전부라 여겼을 때, 여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헤매던 순간에도 소명을 완전히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봐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게는 거울이고 지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월에 와 있습니다. 이 시작은 이제 설렘보다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하느님께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넘어지고 헤매이더라도 누군가가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 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입학 앞두고

이상헌 베드로
학부1, 태화동 본당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이상헌 베드로 신학생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 10년 전, 성소에 응답하지 못했던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성소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1월, 저는 성소국에서 받은 성무일도 책으로 성무일도를 봉헌하고, 신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본당에서 여러 봉사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속에서 제게 축하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하느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이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때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 10년 전 성소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성소를 받고 그에 응답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제가 성소에 응답하여 신학교 면접을 보고 합격했을 때, 저는 하느님께서 참으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활의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경험을 통해 설렘과 두려움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신학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 설렘이라는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걱정과 불안이 채웠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주변의 격려와 응원은 힘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기도와 봉사를 통해 얻는 은총과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함도 사라져 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 흔들리고 있을 때, 성소에 응답하기 전의 저라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려라.’ 일전에 신부님께서 강론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저를 보니,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할 것을 억지로 가지고 있는 미련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을 그렇게나 힘들어하며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나서, 저는 이러한 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그러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청하며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주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기도와 봉사를 통해 받는 은총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다시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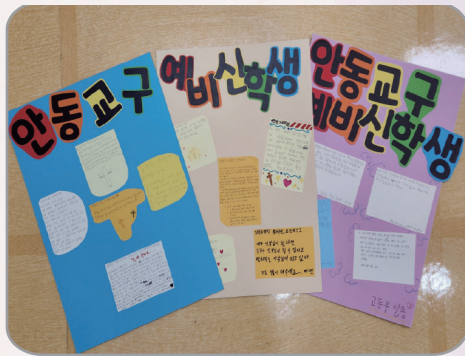
성소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정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한 고민과 그로 인한 괴로움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괴로움이 닥쳐올 때마다 이 경험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제 발걸음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그렇게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 분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기쁘고 떴떳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언제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1월 21일(화) - 22일(수) 1박 2일 동안 신학생들과 예비신학생들이 상주 가르멜 여자 수도원으로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즐겁게 축구도 하고 맛있는 저녁식사도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꿈, 내가 되고 싶은 신부님’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였고, 이튿날 상주지구 성당과 성지를 순례하며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성소자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 림

알 림

1. 대신학교 수직식 및 입학식

수직식 : 2월 28일(금) 11시

입학식 : 3월 1일(토) 11시

장 소 : 대구 신학교 남산동 대성당

대 상 : 시종직 - 김정수 그레고리오(송현동 본당)

이민우 테오필로(봉화 본당)

최영식 아우구스티노(휴천동 본당)

신입생 - 이상현 베드로(태화동 본당)

*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주세요.

2. 2025년 예비신학생 개강미사 및 3월 모임

일 시 : 3월 16일(주일) 오후 2시

장 소 : 교구청

3.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4.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이가엘	10,000	이호숙	10,000	김중향	5,000
가 은	1,149,000	익 명	280,000	이희선	60,000	김지은	10,000
가 흥 동	3,768,000			장희익	20,000	나양수	30,000
계 림 동	1,037,774	타교구 개인		정경자	20,000	박영신	10,000
공 검	99,000	강명천	200,000	정재식	50,000	백형숙	10,000
구 담	1,210,000	강무순	60,000	정태진	20,000	변우경	5,000
남 성 동	2,146,219	권양일	10,000	조기섭	10,000	송 경	10,000
모 전 동	814,000	김건화	10,000	조원준	10,000	신미란	10,000
목 성 동	1,743,000	김경란	10,000	최영옥	10,000	양수모	10,000
문 경	373,000	김경림	5,000	탁인자	30,000	이길선	10,000
봉 화	2,000,000	김경수	50,000	황상호	30,000	이영섭	20,000
북 면	2,115,000	김계형	50,000	월 모 임 편		전정희	5,000
사별퇴강	3,700,000	김계희	200,000	강면식	20,000	정옥남	10,000
안 계	552,000	김광진	50,000	김순례	120,000	최은정	10,000
영 해	600,000	김근희	5,000	서영숙	120,000	최인숙	10,000
예 천	3,500,000	김은경	10,000	심재임	40,000	현희성	10,000
울 진	835,000	김정은	10,000	온 영	60,000	황재혜	5,000
풍 기	6,063,000	김현정	20,000	유근영	120,000	가르멜 여자 수도원	
하 망 동	8,775,000	김혜경	10,000	윤동진	50,000	1,000,000	
함 창	409,000	박승철	10,000	이문옥	120,000	말씀의 성모영보수녀회	
휴 천 동	7,433,000	박종대	10,000	이순연	20,000	2,000,000	
		변진의	10,000	정정숙	240,000	성 분 도 치 과	
		교구 내 기타		조후종	120,000	100,000	
김정현 신부	10,000	서수현	60,000	주신혜	120,000	안 동 신 협	
백동수 신부	10,000	서효식	30,000	최금주	50,000	100,000	
서동호 신부	20,000	송은옥	10,000	한복진	240,000	은총의 거울 Pr	
안영배 신부	10,000	신영은	120,000	호원순	20,000	25,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홍미정	240,000	정의의 거울 Pr	
정양모 신부	100,000	신용찬	50,000	홍현민	120,000	20,000	
정철환 신부	10,000	안명숙	20,000	황인숙	120,000		
박경순	20,000	안일숙	120,000	이 길 선 편			
박보라	10,000	위은숙	10,000	강명희	5,000		
박정렬	10,000	유병현	10,000	권순옥	10,000		
서영림	10,000	이귀호	10,000				
신동섭	10,000	이임영	50,000				
		이정숙	2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도 다른 아이들과처럼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아이들이 많은가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친절과 용서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빨리 저에게 하는 일을
부탁해 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주위와 배고픔이 한꺼번에 닥치는
겨울방학이 싫어요.
저는 겨울방학에도 빨리 학교 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를수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TV 여기저기에서, 오가는 길에서도
먹을 것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저 참만료할까 싶어
속상하고 슬퍼요.

천사아들의 기도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